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 25.(월) 11:00 < 11.26.(화) 조간 > 배포 2024. 11. 25.(월)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대비 베트남 진출기업 영향 점검

- 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5일(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對) 베트남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간담회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난 11.22(금)에 개최한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이자 9천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리 기업들은 전기·전자·반도체·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향후 미국 신(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 우회수출 대응, 대미(對美)무역 흑자국 조치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다음 달 있을「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 등 베트남과 구축되어 있는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정주 (044-203-5710)
		담당자	사 무 관	박형진 (044-203-57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11.25.(월) 11:30~13:00 (총 90분)

○ **(장 소)** 서울 롯데호텔 36F 버클리스위트

○ **(참석자)** 총 20여명

- **(정 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통상협력국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아주통상과장, 미주통상과장, 주베트남대사관 상무관

- **(기 관)** 무역협회, KOTRA, KIEP

- **(기 업)** 전자 삼성전자, 철강 포스코,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기 LS Electric,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섬유 영원무역, 일신방직

□ 진행 순서

※ 언론공개 범위 : 모두발언 까지

시간		내용	비고
11:30~11:35	('05)	모두 발언	본부장
11:35~11:40	('0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40~12:00	('20)	미국 신 행정부 통상정책(베트남 중심) 및 진출기업 영향	무역협회, KOTRA
12:00~12:55	('55)	자유 토의	참석자
12:55~13:00	('5)	마무리 발언	본부장